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3-24)



<성 정하상 바오로>, 성정바오로성당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ㄷㄱ-3,4-5,6  
 (◎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3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 루카 9,23-26

[성가안내]

- 입당성가: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성가: [285] 103위 순교 성인

제1독서

지혜서  
3,1-9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1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2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3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제2독서

로마서  
8,31-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3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

루카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묵상

‘불사의 희망’, 죽음도 꺾지 못하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기대일 수는 없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생기려면 바오로 사도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 주고 계신다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불사의 희망,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누구나 저마다 짊어져야 할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 살기 위해 다녀야 하는 직장, 보기 싫지만 만나야 하는 사람들, 힘겨운 학업, 떨쳐 버리지 못하는 지병, 경제적인 빈곤, 희망 없는 인생, 맞이해야 할 두려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배교를 강요하는 이들의 칼 앞에 당당하게 신앙을 증언한 103위 한국 순교 성인들이라고 이런 인생의 십자가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자들이 배교의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신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행 속에서도 ‘불사의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피를 흘리는 순교는 없지만,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땀과 희생의 순교는 요청됩니다. 한두 번 순교하는 마음으로 참고 살 수는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수행의 연속이고, 그 수행의 끝 날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동중부 한인 성소대회 (2017 Korean American Vocation Conference)

“와서 보시오” (요한 1,39) 주제로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 묵상

제2회 동중부 한인 성소대회(2017 Korean American Vocation Conference)가 지난 9월 9일(토)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알링톤 교구의 성소국(Fr. J.D. Jaffe, Office of Vocations)과 다문화국(Ms. Corinne Monogue, Office of Multicultural Ministries)이 지원하고 성 정 바오로 성소후원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으로 약 12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17년 대회는 “와서 보시오” (요한 1,39)라는 주제로 하느님이 가정과 생활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강사 6명이 한국어와 영어로 특강했다.

성소대회의 한국어 발표자는 성원경 신부(Fr. WonGyeong Seong, St. Paul Chung Church, Fairfax, VA), 백 어거스틴 신부(Fr. Augustine Baek, Reborn Young Christ Center, Stony Point, NY), 홍 켈마 수녀(Sr. Gemma Hong, Daughters of St. Paul, Alexandria, VA) 그리고 영어 발표자는 최 마르티노 신부(Fr. Martino Choi, St. Patrick Church, Rockville, MD), 이 데레사 수녀(Sr. Theresa Lee, Salesian Sisters of Saint John Bosco), 김 마티아스 신부(Fr. Matthias Kim, St. Mary Church, Orange County, CA)가 담당했다.

성 신부는 향주삼덕(믿음, 희망, 사랑)을 설명하며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의 성소를 도와줄 수 있는지,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우들의 성소 개발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강의했다.

홍 켈마 수녀는 미국 이민과 수녀가 된 이야기를 전하며 “수녀로서 언론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고 전했다. 백 신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성스러운 삶, 공동체의 삶,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다” 며 “성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 습성과 지적 능력을 기르고 이웃에 친절하며 신심을 실천한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이라고 전했다.

영어 발표자였던 최 마르티노 신부는 “현대는 성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성소의 위기(Vocation Crisis)’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위기(Response Crisis)’ 의 때” 라고

말했다. 최 신부는 어린 시절과 대학생, 직장 생활 중에서도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하느님의 부르심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게 된 시간들을 전하면서 “지금은 그 부르심이 하느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제로 살아가고 있다” 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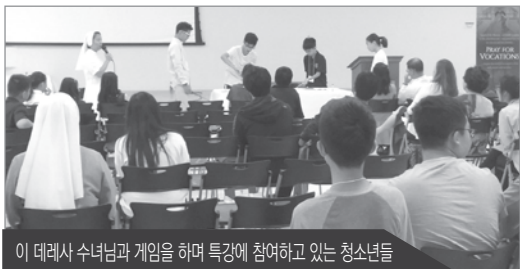
이 데레사 수녀는 어린 시절부터 “Who am I? Why am I here?”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혼돈 속에 살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는 기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고 전하며 “우리 모두는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미사 참여, 성체성사, 성체조배 그리고 묵주기도 등을 통해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 마티아 신부는 어린 시절 개신교 신자에서 가톨릭 신자로의 갑작스러운 개종 그리고 학창 시절 친구들이 절대로 사제가 되지 않을 인물로 믿었던 본인이 이제는 사제가 된 삶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지에 대해 전하며 준비해 온 영상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참가자들과 함께 한 질의 응답 시간에 모든 강사 신부·수녀들은 “사제·수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후회는 없는가” 에 대한 질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느님을 통해 받은 은총과 행복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고 대답하였다.

참가자들은 저녁식사 후 성당에 함께 모여 30분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토요일 저녁 미사를 드리며 성소대회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1회였던 지난 해에 비해 참가자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영어권 청소년들이 특강을 경청하고 성소에 대한 질의응답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희망적이었다. 내년에는 주위 타 한인 성당의 성소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더 많은 한인 교우들이 성소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데레사 수녀님과 게임을 하며 특강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성소국장 제피 신부님과 특강 신부님들이 함께 한 질의응답 시간



최 마르티노 신부님의 특강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

# WELCOME Back TO SCHOOL

## Happy First day of Sunday school!

SPC Sunday school student said goodbye to the long summer and hello to the first day of school on September 10th.

Students were so happy to see each other and to meet the new teachers.



### Greetings from CCD Asst. Principal

Happy New Sunday School Year!

On behalf of Fr. Bang and the staff at St. Paul Chung Sunday School, I would like to welcome each of you and your children.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hare the love of Jesus and our Catholic faith.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r children and providing them a meaningful, fun and enjoyable experience.

This year will be an another blessed one!

- Yunchong Boyle (CCD Asst. Principal)

### ANNOUNCEMENT

#### 1. Confirmation class Parents' Meeting

- When : Sept. 20(Wed), 8pm
- Where : Hasang Building

#### 2. Korean Martyrs Activity for CCD students

- When : Sept. 24(Sun), 10am - 11:15am
- Where : gym

#### 3. Fire Drill

- October 1<sup>st</sup>(Sun)



### Teachers' Directory (2017-2018)

- Principal : *Rev. Myeong Jun Bang*
- Assistant Principal (K- 8<sup>th</sup>) : *Yunchong Boyle*
- Administrative Assistant(교무) : *Katie Cho*  
*Yong Ju Kim*

Keen Kindergartens (K)	Lead Teacher <i>Jee Eun Kang</i> Asst. Teacher <i>Kee Eun Park</i>
Fabulous First (1 <sup>st</sup> )	Lead Teacher <i>Soo Jung Woo</i> Asst. Teacher <i>Na Youn Park</i>
Super Second Grade (2 <sup>nd</sup> )	Lead Teacher <i>Justina Park</i> Asst. Teacher <i>Monica Ha</i>
Terrific Third (3 <sup>rd</sup> )	Lead Teacher <i>Emily Sung</i> Asst. Teacher <i>John Seok</i>
Fantastic Fourth (4 <sup>th</sup> )	Lead Teacher <i>Jessica Seo</i> Asst. Teacher <i>So hyun Park</i>
Ferocious Fifth (5 <sup>th</sup> )	Lead Teacher <i>Seonhwa Jeong</i> Asst. Teacher <i>Jina Jung</i>
Sixth Grade Sages (6 <sup>th</sup> )	Lead Teacher <i>Yonho Kim</i> Asst. Teacher <i>TBD</i>
Serious Seventh (7 <sup>th</sup> )	Lead Teacher <i>Stephen Sheiko</i>
Energetic Eighth (8 <sup>th</sup> )	Lead Teacher <i>Theresa Lee</i>
Gym Activity	Coordinator <i>Kwang Hui Lee</i>
Orchestra & Music Activity	<i>Stephanie Cha</i>
Jr. High Activity	TBD
Floater	<i>Hyung Joon Lim</i>

#### Sacrament Class

First Communion & Confirmation *Wolkyun Shin*  
First Communion *Yongsin Nam / Selly Nam*  
Confirmation *Andrew Oh*

## Farewell Fr. 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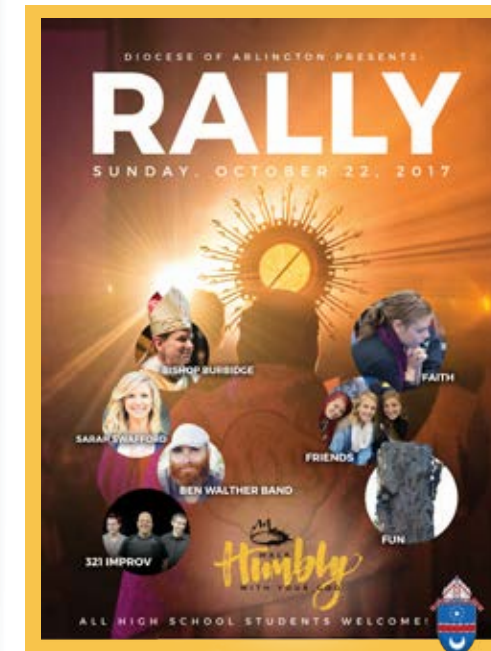
It was a bittersweet moment when Father Seong served his last Sunday Mass at St. Paul Chung on September 10th.

For two years, SPC church community of faith has indeed grown stronger under Father Seong's guidance, though he's warm and friendly character.

We were so blessed that you were our father, and our lives were touched. We will always remember how special you made us feel.

Thank you.

## RALLY 2017



Bishop Burbidge invites all teens of the Diocese to join him at RALLY 2017! This annual event is an opportunity for the young Church in the Diocese of Arlington to gather each year to pray, learn, and celebrate the Catholic faith. RALLY includes Mass with Bishop Burbidge, Eucharistic Adoration, inspirational speakers and entertainers, breakout sessions, inflatable games, music, and more!

RALLY is designed to be open to any high school aged youth wanting to attend, at any stage in their faith journey.

In 2016, over 700 teens and adult leaders from 46 parishes and missions attended RALLY. Our goal is to have all 69 parishes and five missions participating in this event. If you have a child in high school, we encourage you to call your parish to see if they will be participating. Perhaps if they are not already planning to join, this will change if they hear that there are interested families!

**WHEN :** Sunday, October 22, 12:00pm-8:00pm

**WHERE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COST :** \$25.00 per participant (youth and adults), which includes all of the great entertainment above, dinner, and snacks.

**HOW TO SIGN UP :** Young people that want to participate must sign up through their parish point of contact (usually the Director of Youth Ministry).

## 9월 소공동체 모임

지난 9월 9일(토)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태 복음(18,15-20)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진교를 나누었습니다.



웨어팩스 3구역 3반

9월 10일(일) 오후 버크 레이크 파크에서 11세대 21명의 식구들이 모여 화창하고 맑은 초가을 하늘 아래에서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복음 말씀 “형제가 죄를 지으면”을 묵상하며 각자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라우든 구역 2반

불런 파크에서 피크닉을 겸해 열린 모임에 16가정 총 61명의 대가족이 피크닉을 겸하여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참석자들은 다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을 나누자고 다짐하였습니다.

### 스프링필드 구역

강승평 요한 형제님 댁에서 14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백 신부님은 강론 말씀으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ME 부부 주말 여행



ME(Marriage Encounter) 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동북부 주처 부부 주말 여행을 뉴저지로 다녀왔다. 흥성계 스테파노 지도 신부와 본당의 10쌍 부부 그리고 뉴욕에서 7쌍 부부가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부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부부간의 참사랑을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전했다.

오는 10월 1일(일)에는 이번에 새로 ME 부부가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한 환영회를 나눔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 꼬미시움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인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단장 김국스떼파노) 월례회의가 9월 10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45명의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월례회의는 묵주기도에 이어 간부 임명 승인, 사업보고, 훈화 및 공지사항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레지오 마리아 영적지도신부인 백인현 주임신부는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는 훈화 말씀을 통해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공지 사항으로 9월 17일(일)에 있을 레지오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10월 29일에 예정된 가두선교단 발대식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행사 안내

### 음악의 밤

- 일시 : 9월 23일(토) 오후 8시(7시 미사 후)
- 공연 참가자 : 8시 성가대, 10시 성가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핸드벨, 쉼마 청년 성가대, 70/80 연주단

### 성경 · 교리 퀴즈대회

-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1시(친교실)
- 대상 : 구역별 / 개인
- 접수 기간 : 9월 17일 /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문의 : 강세원 구역부 회장 (703) 489-3938

### 광고

Falls Church에 위치한 Car Wash에서 Full/Part time 직원 구합니다. 문의 : 이요한 (703)483-5511

**제8대 보좌 방명준(라우렌시오) 신부님 부임미사**  
 ☆ 일시: 9월 17일(일) 오전 10시 미사  
 저희 본당에 부임하신 방명준 신부님을 환영하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 전 신자, 성서통독반, 새 영세자를 위한 특강**

- 일시: 9월 20일(수) 오후 8시, 친교실
- 주제: 말씀, 어떻게 들을 것인가?
- 강사: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원주교구)

**2 하상회**

- 일시: 9월 17일(일) 오전 11:30 (부엌 뒤 테라스)

**3 안나회**

- 일시: 9월 17일(일) 오전 11:30 (부엌 뒤 테라스)

**4 레지오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행사**

- 일시: 9월 17일(일) 오전 11:30 - 오후 3시 (나눔터)

**5 베드로회 모임 (40대 교우)**

- 일시: 9월 17일(일) 오후 1시 (B-1,2)

**6 바오로회 주관 친목 운동회**

- 바오로회가 로고스, 라파엘, 베드로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친목 운동회에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바오로회와 선배님들과 동생들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입니다. 20-40대 미/기혼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9월 17일(일) 오후 1시-4시, 체육관
- 문의: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sleeh@yahoo.com

**7 9월 23일(토) 특전 미사 오후 7시로 변경**

- 9월 23일(토)에 열리는 음악의 밤 행사로 인해 특전 미사가 7시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울드레아 야외행사**

- 일시: 9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Bull Run Regional Park #7
- 문의: 곽노덕 (703)608-9664

**9 KofC 모임**

- 일시: 9월 24일(일) 오전 11:30 (A-1,2)

**10 요한회 월례회의 (50대 교우)**

- 일시: 9월 24일(일) 오전 11:30 (B-3)

**11 복사단 모임**

- 일시: 9월 24일(일) 오후 12:40 (B-1,2)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17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방명준 보좌 신부님 부임미사, 안나회/하상회(오전 11:30, 부엌 뒤 테라스), 레지오 야외행사(오전 11:30, 나눔터), 베드로회 모임(오후 1시, B-1), 바오로회 운동회(오후 1시, 체육관), 성서통독반(오전 11:50), ME학교 봉사자 교육(오후 2시, A-1,2)
18일(월)	연중 제24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9일(화)	연중 제2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성경기도회(오후 8시), 바오로회 기획부 모임(오후 8시)
20일(수)	연중 제2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정남진 신부 특강(오후 8시, 친교실)
21일(목)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2일(금)	연중 제2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CLC, 바오로회 자매모임(오후 8시)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특전미사(오후 7시, 성당), 공동체 31주년 음악의 밤(오후 8시, 성당)
23일(토)	피에르엘차리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8시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KofC 모임(오전 11:30, B-1,2),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B-4,5),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B-3),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성경 퀴즈대회(오후 1시, 친교실), 우드브리지 미사 없음
24일(일)	연중 제25주일	

**12 한가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일시: 10월 4일(수) 오후 8시
- 합동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10시 성가대 단원 모집**

- 10시 미사 성가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에 관심 있는 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9월 17일부터 10시 미사 후 성당 로비
- 문의: 김윤식 블라시오 (214)592-6369

**14 꾸르실리스마 영성 파절**

- 일시: 9월 24일(일) 오후 1:30 - 오후 6시
- 강사: 김중성 베드로 신부
- 장소: 워싱턴 성당 (소성당)
- 문의: 곽노덕 (703)608-9664

**15 제4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 주제: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 (나이 관계 없음)
- 접수 기간: 9월 24일(일), 10월 1일(일) 친교실, 선착순 40명
- 문의: 최아벨라 (703) 470-1220, 김베로니카 (703) 864-1236

**16 하상 한국학교 보조교사 및 자원 봉사자 모집**

- 하상 한국학교에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와줄 보조교사 및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육옥영 교감 (703)598-5540

**17 세계 제25차 기도와 금식 주간 (10월 1일 - 10월 9일)**

- 개인과 세계 모든 국가들의 화해, 결핵과 가정생활의 성화, 생명존중 문화를 일깨우고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무명성모회 사제들과 레지오 마리아, 생명수호 사제단이 함께합니다.
- 10월 9일(월) 마지막 날: 기도의 날 행사 진행 / Joseph Perry 주교님(사카고대교구) 미사 및 강론, 연설
- 장소: National Shrine (D.C) 오전 9시 - 오후 4:30
- 문의: (888) 478-PRAY, (703)707-0799 / www.iwopf.org

**\*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 음악의 밤**

- 일시: 9월 23일(토) 오후 8시 (7시 미사 후)
- 공연 참가자: 8시 성가대, 10시 성가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핸드벨, 쉐마 청년 성가대, 70/80 연주단

**2. 성경/교리 퀴즈대회**

- 일시: 9월 24일(일) 오후 1시 (친교실) • 대상: 구역별 / 개인
- 접수 기간: 9월 17일(일)까지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강세원 구역부 부회장 (703)489-3938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24주간: 민수 31-36 / 마르코 11장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선교: 본당**

우리 본당이 선교 정신을 복돋아 신앙을 전하고 사랑을 증언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9월 21일 (목) 오후 5:00-6:00
- 9월 22일 (금) 오후 8:00-9:00
- 9월 24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 다큐멘터리 임 따라 한평생 : 한국 천주교회 두번째 조선인 사제 최양업 도마 신부의 후손 최가식 베네딕토 신부의 삶과 신앙 3·4편.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9월 10일 (연중 제23주일)

- 주일헌금 ..... \$ 8,220.00
- 교무금 ..... \$ 9,407.60
- 교무금(크레딧카드) ..... \$ 2,590.00
- 특별헌금 ..... \$ 260.00
- 2차 헌금 ..... \$ 5,938.00
- 합계 ..... \$ 26,415.6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구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규(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영(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호(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차(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희순(세실리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앤토니), 심용현(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 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토)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메디케어</b>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한중희 토마스</b> 공인 회계사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SBA 대출/상업대출</b>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b>공인회계사(CPA)</b>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b>Kwon's Champion School</b> 종합무술 (Before / After / Evening) 703-785-3845	<b>피아노 레슨</b>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호영 (요셉)